

SM 가수들도 MAMA 불참 선언..시상식 존폐 위기에 놓여

입력 2009. 11. 3. 16:18 · 수정 2009. 11. 3. 16:22





[스포츠조선 T—뉴스 이정혁 기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아시아뮤직어워드'(이하 MAMA) 시상식에 단체로 불참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열리는 2009 MAMA에 대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SM 소속 가수들은 불참한다"고 밝혔다.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mnet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엠카운트다운'의 순위 선정 기준과 유사한 2009 MAMA의 수상자 선정 기준 및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실례로 국민적인 히트를 기록한 소녀시대의 '지(Gee)'가 타 음악 프로그램에서 9주 연속 1위를 하는 동안, '엠카운트다운'에서는 단 한번도 1위에 오르지 못했으며, 순위 권에 진입한 것도 발매된 후 약 한 달 만인 2월 첫째 주 차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mnet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한해 가요계를 결산하는 시상식에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SHINee, f(x) 등 SM 소속 가수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9 MAMA는 엠넷닷컴(www.mnet.com)에서 반드시 유료회원(최소 3000원 이상)으로 가입해야만 투표 할 수 있고 또한 유료로 진행되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상업적인 방식인 만큼, 수 많은 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mnet 측에 후보 삭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써 MAMA는 2일 장윤정 박현빈 등이 속한 인우기획 소속 가수들의 집단적인 불참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까지 가세하며 시상식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 jjangga@sportschosun.com > < scnewsrank > ▲ 하이킥 신애, 걸그룹 티아라 완벽 재연? ▲
꼬마시절부터 트렌드세터? 이혜영 유년 시절 사진 최초 공개

▲ 박찬호, 이틀 연속 무실점 역투

▲ 이지애 아나운서, 이번에는 퀴즈의 여왕?

▲ 이병헌, 독기 오른 액션으로 11대 1 싸움도 거뜰

[👉 웹신문 보러가기] [👉 스포츠조선 구독]-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